

나의 삶. 나의 하나님

아들을 생각하며 개척교회를 찾아.....

임동진(장로/텔런트)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기텔런트 임동진씨(장로·주님의교회)가 5월 예성총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을 아들 임영희전도사(34)를 찾아가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임전도사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일산시에 주은혜교회를 개척했다. 임장로는 아들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우면서도 대견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내심 집에서는 아버지를 이어 배우가 되기를 바랐을 정도로 준수한 외모를 갖춘 임전도사는 중학교 시절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미션스쿨을 다닌 그는 학교 수련회를 통해 신앙훈련을 받았고 자신의 결심을 가족들 앞에서 공표했다. 그런 아들을 제일 많이 반대했던 것은 사실 아버지였다.

“처음에는 그저 하는 소린줄 알았습니다. 반대를 많이 했죠.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절제해야 하는 목회자의 삶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상담역할을 하는 등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 등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많은 신앙적 갈등을 겪으며 성장했다는 임전도사는 고등학교시절 연대장을 하며 세상적 매력에 빠져 하나님 자체를 부인한 적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 성경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된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

“사람들이 목회비전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비전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열정을 쏟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젊어 모든 것에 가능성이 많다는 임전도사는 학원이 많은 주변적 요건으로 인해 2000년 교회의 목표를 ‘청소년전도의 해’로 삼았다고 말했다. 임장로는 아직까지는 임전도사가 ‘성직자’ 보다는 그저 가슴 한귀퉁이에 애잔하게 남아있는 ‘아들’로 생각된다. 최근 처음으로 아들의 교회를 찾은 임장로는 참고 참았던 속내를 털어내며 눈시울을 적셨다.

“요즘 개척교회에서 간증집회를 와달라고 하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달려갑니다. 자동차로도 힘든 곳을 가는 것은 그 목사님들처럼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임전도사 생각이 나서입니다”

임동진장로와 아들 임전도사는 서로 손을 맞잡고 깊은 신앙적 교감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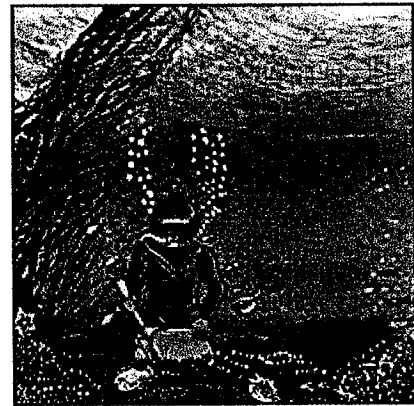
-국민일보에서-

교회 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 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점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2권 5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12월24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다시 읽는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난다. 한 도시에서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았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되었다. 서로에게 선물은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꽃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먹고 갖고 있던 시계를 팔기로 결정했다.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하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 팔았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나가 선물을 구입했다. 짐과 델라는 서로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거의 같은 시간 집에 도착했다. 짐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 주려고 했으나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깎여 있었다. 델라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었으나 남편에게 이미 그 시계가 없었다.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됐지만 둘은 곧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사랑은 추위를 녹인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나누는 성탄절이 되길 기도하자. (김순권 목사)



고난의 끝에 다다랐을 때만이 이곳까지 끌어내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9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6(강림절 2)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25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이선우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예 배 소 서 2:19-22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 부 성 가 대 Couple Choir		부 부 성 가 대
설 교 Sermon	"밝은 별을 따라온 사람들"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23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 탁 의 말 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2월 예배 위원>

일 자	헌금위원	기 도	teatime봉사
12/3	최윤희, 송정섭	신 경 화	김영길, 이영권
10일	김효권, 이영주	이 경 석	정재정, 이상욱
17일	이경석, 한은영	이 영 권	최재학, 이경석
24일	최재학, 노은숙	이 선 우	김효권, 김성국
31일	김영길, 신경화	최 재 학	김교섭, 최윤희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 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 화요새벽기도회 *선 교: 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예배 1:30 pm	수요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새벽기도: 6:00
--------------	--------------------------	--------------

교 회 소 식

1. 성경완독 1년
 -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 *지난주: 열왕기하 2명
2. 성탄축하 "Christmas in the family"
 - *일시: 24일(주일) 저녁 7시
 - *장소: Adria
 - *1-2가정씩만 초대하여 주십시오
(초대대상: 성탄절 이브를 교회에서 보내지 못하는 이웃)
3. 성탄절 예배(25일)
 - *성탄절예배는 12시 교회에서 드립니다
4. 송구영신 예배
 - *새해를 하나님께 드리며 맞습니다
 - *일시: 12월 31일 밤11:30.
 - *장소: 교회
5. 2001년 교회목표
 -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의 신앙"-'경건의 시간' 생활화
 - *실천사항:<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 성경, 찬송"
<주일저녁> "가정 예배"(예배문) 정착
6. 정기 가정심방: 내년부터 월 1회 "가정심방"제도를 갖습니다(안내문 참조)
 -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신청하여 주십시오
7. 12월의 교회력
 - 성찬식(3), 공동의회(17), 직분임명(24), 성탄절이브(24), 성탄예배(25), 송구영신예배(31)
송구영신예배(31)